미국·이란 종전 타결…마침내 호르무즈 풀린다

19일 MOU 후 해협 개방…韓유조선 등 빠져나올 전망
걸프국들 석유·가스 생산 정상화 등 수급 완화 기대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사실상 100일 넘게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마침내 정상화를 앞두게 됐다.

전 세계 석유·천연가스 공급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한 에너지·물류 수송로이지만 그동안 전쟁과 이에 따른 해상봉쇄로 제 역할을 못했던 이 해협이 개방되면 세계적 에너지·물류 이동에 숨통이 트이고 유가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자유로운 통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IRGC가 해협을 지나려던 선박들을 공격하고 기뢰를 부설하는 등 선박 통제에 나서자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역봉쇄와 호위 작전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글로벌 해운·보험 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즉시 풀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미국도 이란 해상에서 펼치고 있는 대이란 '역봉쇄'를 해제하기로 해 글로벌 에너지·물류 업계로서는 한시름 덜게 됐다.

우선 MOU 체결에 따라 지금까지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4척을 포함해 수백척의 유조선·상선이 순차적으로 빠져나올 전망이다.

해협을 통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에 물꼬가 트이면서 그동안 수출로 차단에 원유 등 생산량을 줄였던 걸프국도 생산을 점차 정상화할 수 있어 에너지 수급 불안도 빠르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유와 LNG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에서는 전쟁 이후 우회 운항과 대기 상태에 들어갔던 선박들이 순차적으로 복귀하면 운임과 보험료 상승 압력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에너지·물류 공급망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쟁 기간 급등한 보험료 등 운항 비용 부담이 여전한 데다, 주요 선사들이 기뢰 제거 등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운항 정상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UFC 프리덤 250' 대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의 로돌프 사데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프랑스 의회 청문회에서 "평화적인 해법이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위기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우리는 호르무즈의 수감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고 모든 것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CMA CGM은 계속해서 다른 항로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MOU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란이 향후 다시 호르무즈 재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변수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이 '해협 개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힌다. 미국은 자유로운 항행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란은 자국이 해협 통제권과 관리 권한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지난달 MOU 체결이 논의될 당시 해협 통항 재개는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란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선언한 것과 달리, 앞으로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해석의 차이와 이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젤렌스키·푸틴, 트럼프와 통화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상황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80세 생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전화 통화를 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의 '목표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크라 전쟁 중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쟁 해결을 위해 유럽·우크라이나 등 모두와 협력할 준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으며 이날 중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일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푸틴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장 먼저 전화한 외국 정상"이라고 언급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생일을 축하했고 여러 핵심 사안에 대해 꽤 상세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장의 최근 상황을 설명했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나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